'좋알람2' 김소현·송강·정가람 "성숙해진 로맨스"

천계영 작가의 웹툰 원작…오는 12일 넷플릭스서 공개

좋아하는 사람이 반경 10m 안에 들어오면 알람 울리는

'좋알람' 앱 개발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로맨스 그려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세상에서 펼쳐지는 로맨스를 담은 '좋아하면 울리는'이 2년 만에 새 시즌으로 돌아왔다. 어른이 된 세 사람의 한층 더 성숙해진 감정 선과 깊어진 로맨스가 기대를 모은다.

8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 2 제작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배우 김소현과 송강, 김진우 PD가 참석했다.

천계영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좋아하면 울리는'은 좋아하는 사람이 반경 10m 안에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좋알람' 앱이 개발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로맨스를 그린다.

지난 시즌에서는 알람을 울릴 수 없는 고등학생 조조(김소현 분)와 그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혜영(정가람), 선오(송강)의 삼각관계가 그려졌다.

'굿 닥터', '추리의 여왕' 등을 연출한 김진우 PD가 새롭게 합류한 두 번째 시즌에서는 '좋알람' 앱 출시 4년 후 어른이 된 세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절절한 삼각 로맨스는 더욱 깊어진다. 어느덧 성인이 되었지만 좋알람이 울리는 것을 막는 방패 기능 때문에 누구에게도 진심을 전할 수 없는 조조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런 조조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혜영은 함께 시간을 쌓아나가고 선오는 조조를 잊지 못해 직진한다.

좋알람의 기능도 주목된다. 더 이상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든 좋알람이 '당신을 좋아할 사람', '당신이 좋아할 사람' 리스트까지 공개하는 신기능의 2.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미리 짐작하고 들떠 한다.

김소현은 "조조는 방어적인 사람인데 시즌 2 때는 방패 때문에 답답해한다"며 "감정연기가 많았다. 삼각관계 안에서 흔들리는 조조를 연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좋아하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도 신기했는데 이번에는 좋알람이 좋아할 사람들도 알려준다"며 "좋알람의 신기능으로 인해 펼쳐지는 이야기도 흥미롭다"고 했다.

송강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잊지 못하는 가슴 아픈 첫사랑과 마주하는 선오를 더 깊어진 감정 연기로 그려낼 예정이다. 시즌1과 시즌2의 선오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첫 사랑인 조조와의 이별로 가슴 아파하지만 시즌2에는 내면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어른스러운 선오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즌1에서는 고등학생의 풋풋함이 엿보였다면 시즌2에는 갈등이 극복되고 성장한 캐릭터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즌2에는 눈물을 많이 흘렸다. 선호의 마음이 와 닿아서 마음 아프게 연기했다"며 "선호를 연기하며 지금까지 흘린 눈물보다 많이 운 것 같다"고 떠올렸다.

정가람은 우직하게 조조의 곁을 지키는 혜영을 더욱 성숙하게 연기하며 설렘 지수를 높인다. 김진우 PD는 "정가람은 실제로도 혜영이와 닮았다. 진중하고 성실하며 생각이 깊다. 싱크로율이 가장 높다"고 인정했다.

좋알람 어플로 변화된 사회상도 관전 포인트다. 좋알람 어플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해주는 수단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트의 개수로 사람들을 나누고 계급화 시키는 권력 표출의 수단으로 변모해간다. 하트 수 조작 사기는 물론 좋알람과 관련된 범죄까지 잇따르는 등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의 문제와 깊숙이 연관된다.

김 PD는 시즌2에서 조명되는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등장인물들이 이런 사회적 현상들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12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싱어게인' TOP3, 진짜 '유명가수' 만난다

다음달 2일 첫 방송

'싱어게인' TOP3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이 '유명가수전'에서 진짜 유명가수들을 만난다.

8일 JTBC에 따르면 신규 예능 프로그램 '유명가수전'이 오는 4월2일 오후 9시에 첫 방송된다.

'유명가수전'은 무명 가수들의 도전으로 방영 당시 매회 화제의 중심에 섰던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의 제작진이 참여하는 또 하나의 기대작이다.

'싱어게인'에서 최종 TOP3에 오른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이 출연한다. '싱어게인'은 지난 2월 종영 당시 티저 영상에서 TOP3와 함께 '유명가수전'으로 돌아올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유명가수전'은 갓 유명가수가 된 TOP3 멤버들이 대한민국 전설의 가수들인 '갓(GOD) 유명가수'들을 만나며 펼쳐지는 음악과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과 가요계 전설적 가수들의 만남이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세 사람이 '싱어게인'에서 경연곡으로 불렀던 명곡들의 실제 주인공과 만들어나갈 케미가 관전포인트다.

TOP3는 아지트인 '유명가(家)'를 오픈해 매주 선배 유명 가수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모처에 마련 중인 이들의 아지트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이곳을 찾을 첫 레전드 유명가수의 정체는 누구일지 궁금증을 안긴다.

제작진은 "현재 열과 성을 다해 우리나라 최고의 유명가수들을 모시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분들의 명곡을 재해석함은 물론 역대급 컬래버레이션 무대도 준비 중"이라며 "가수분들에게도,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가수전'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JTBC에서 방송된다.

에이프릴 이나은, SBS '모범택시' 하차…"전부 재촬영"

"전체 촬영의 60% 정도 진행된 상황"

걸그룹 '에이프릴'의 이나은이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에서 하차한다.

'모범택시' 제작사 스튜디오S 측은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모범택시' 제작진은 소속사와 협의해 주요 배역으로 출연 예정이었던 배우 이나은의 교체를 결정했다"며 "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체 배역 캐스팅 등으로 인해 입장 발표가 늦어진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범택시'는 전체 촬영의 60%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며 "해당 배우 출연 분량은 새로운 배우가 투입되어 전부 재촬영할 예정"이라며 "스튜디오S와 '모범택시' 제작진은 좋은 드라마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나은은 최근 '에이프릴'의 전 멤버인 이현주의 팀 내 왕따 의혹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현주의 동생이라고 밝힌 이가 이현주가 팀에서 괴롭힘을 당해 탈퇴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소속사는 이를 부인했으나, 이후 이나은은 학교 폭력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모범택시'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배우 이제훈, 이솜, 김의성 등이 출연한다.

이나은은 당초 무지개 운수 소속 해커이자 신상털이에 탁월한 실력을 지닌 '고은' 역을 맡았다.

'모범택시'는 '펜트하우스2' 후속으로, 4월 9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미나리', 크리틱스 초이스 아역상·외국어영화상 2관왕

여우조연상 후보 윤여정은 불발

감독·작품상, 자오 '노매드랜드'

한인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가 미국 방송영화비평가협회(BFCA)가 주관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영화상에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BFCA는 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26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미나리'를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미나리'는 미국 양대 영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데 이어 미국 비평가들이 뽑은 크리틱스 초이스에서도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 '미나리'에서 한인 이민자 가족의 막내 아들 역할을 연기한 앨런 김이 아역배우상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

화상 연결을 통해 만난 앨런 김은 "우리 가족들과 아이작(정이삭) 감독님, 그리고 모든 배우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결국 눈물을 터뜨린 앨런 김은 자신의 볼을 꼬집기도 하며 귀여운 수상 소감을 전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할머니 '순자' 역할을 연기한 윤여정은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으나 아쉽게도 수상은 불발됐다.

한인 2세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각본을 쓰고 연출한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남부 아칸소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리틱스 초이스는 골든글로브에 이어 중국계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한 '노매드랜드'에 작품상의 영예를 안겼다. 감독상 역시 자오 감독이 가져갔다.

골든글로브에 이어 할리우드 시상식 시즌 초반에 열리는 크리틱스 초이스는 BFCA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의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주요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감독상과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카데미는 15일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연기상 등 주요 부문의 후보작을 발표한다. 시상식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트와이스, 일본 새 싱글 '쿠라 쿠라' 5월 발매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 작사 맡아

그룹 '트와이스'가 오는 5월 일본에서 새 싱글 '쿠라 쿠라(Kura Kura)'를 발표한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오는 5월12일에 일본에서 새 싱글 '쿠라 쿠라'를 발매한다.

앞서 트와이스는 지난 6일 오후 7시 생중계로 진행한 일본 온라인 라이브 '트와이스 인 원더랜드(TWICE in Wonderland)'를 마무리하며 공연 말미에 새 싱글 발매를 알리는 영상을 깜짝 공개했다.

나연은 "공연은 끝났지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큰 스포 하나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고, 화면에는 '트와이스 일본 싱글 8집 'Kura Kura' 2021. 5. 12 공개'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번 싱글 '쿠라 쿠라'는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사를 맡았다. 상대를 만난 순간 마법에 걸린 듯 둘만의 세상으로 깊게 빠져드는 감정을 표현했다.

현지 팬들은 트와이스를 약 1년 만에 공연으로 만나고, 잇따른 신보 발매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와이스는 지난해 12월 한일 음반 누적 출고량 1000만장을 돌파하는 등 국내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 10월 데뷔 미니 앨범 '더 스토리 비긴즈(THE STORY BIGINS)'부터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규 3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Eyes wide open)'까지 국내 누적 앨범 출고량은 이날 기준 593만8508장이다.

일본에서 발매한 2017년 6월 데뷔 베스트 앨범 '해시태그트와이스(#TWICE)'부터 싱글 7집 '베터(BETTER)'까지 현지 음반 판매고는 422만2781장을 넘어섰다.

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선정 '2020년 최고의 팝스타'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선정 '연도별 최고의 팝스타(THE GREATEST POP STAR BY YEAR : 1981-2020)'에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1981~2020년 연도별 최고의 팝스타'에서 방탄소년단은 2020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팝스타로 뽑혔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최고의 팝스타'로는 케이티 페리(Katy Perry), 아델(Adele), 리아나(Rihanna), 마일리 사이러스(Miley Cyrus), 비욘세(Beyonce),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 에드 시런(Ed Sheeran), 드레이크(Drake), 아리아나 그란데(Ariana Grande)가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팝은 미국 팝 음악 주류에 들지 못한 주변부 장르였다. 그러나 '세계를 호령하는 보이밴드'로 더 잘 알려진 방탄소년단은 지난 5년 간 성공적인 월드 투어, 세 장의 앨범으로 '빌보드 200' 정상 정복, 세계적 팬덤 아미(ARMY)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K-팝을 미국에 확실히 정착시켰으며, 2020년 최고의 팝스타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작년 8월 발매한 디